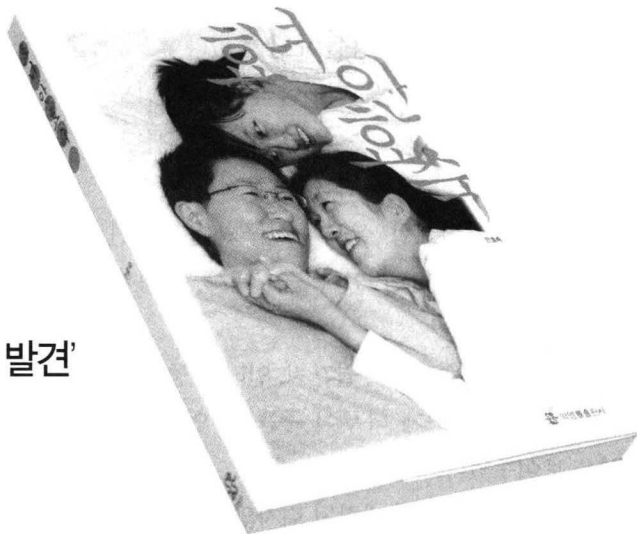


안효숙 1부 1
박영률출판사 1
2019년 1월 10일
2019년 1월 10일

《효녀 안효숙》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가족의 발견'

글_ 최정엽 박영률출판사 편집주간



그녀는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웃었다.

“어서 오세요.” 그 순간 내 마음속이 환해졌다. 중중 환지를 마주해야 하는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하던 비호감의 요소들이 말끔히 사라졌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녀의 어머니는 화사하고 상쾌했다. 연신 웃었다. 그래서였을까? 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은. 그들의 미소가 아니더라도 이 가족이 겪은 이야기는 충분히 드라마틱했다.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매혹당한 것은 무엇이였을까? 그들의 미소 뒤에서 배어나오던 ‘사랑’이었다. 그리고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행복’이었다. 가장 불행한 것 같은 가족에게서 행복을 느끼다니. 그 행복의 실체를 만나보고 싶었다.

안효숙은 이렇게 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책의 주제를 ‘가족사랑’으로 잡았다. 가족이 점점 해체되어 가는 시대, 부모와 아들 딸의 역할이 실종되고 한 집에 살면서도 대화는커녕 얼굴 맞대기도 어려운 시대에 오아시스 같은 이야기를 내놓고 싶었다. 그리하여 독자들이 새롭게 자신의 가족을 발견하고 제대로 된 가정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다. 행복이란 누구에게나 가장 가까운 곳, 바로 가족에게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도록.

1월에 기획을 시작하여 4월에 책을 만들어 5월 어버이날과 가정의 달에 프로모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저자가 글을 쓰는 동안 이 책을 어떻게 널리 알릴 수 있을지 고민이 시작되었다. 저명하지도 않은 저자의 유명하지도 않은 가족사는 자칫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 묻혀 버릴지도 몰랐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방송과 연계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저기 방송프로그램과 접촉하기 시

작했다. KBS 인간극장에서 답변이 왔다. 방송에 소개된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는 사례는 많지만 책을 준비하면서 방송물과 연계시키는 일은 흔치 않다. 이 책을 방송을 활용한 출판 마케팅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을 우리 책의 예비 반응으로 생각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했다.

글의 방향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쿨’이었다. 억지로 감동을 자아내지 않고 솔직하고 담백한 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의 감수성이다. 편집도 그에 맞는 컨셉이 필요했다. 실존하는 인물의 휴먼스토리이므로 저자의 실재감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안효숙 가족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을 촬영하여 요소요소에 배치했다. 저자의 스토리 한 축이 되고 사용하는 물건의 사진이 또 다른 축이 되어 서로 넘나들며 교직되는 편집방식을 취했다.

제목을 ‘효녀 안효숙’으로 명명함으로써 이 책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설정했던 따뜻하고 감성적인 제목들로는 우리가 이 책에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다 표현하지 못했을 것이다.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가족의 발견’이고, 가족의 또 다른 표현은 ‘효’이다. 현대의 효는 자식이 부모를 위해 무조건 희생하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함께 행복해야 하는 수평적인 것이다. ‘효녀 안효숙’은 안효숙이라는 효녀를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 시대의 효, 또는 가족을 표현하는 보통명사이다. 안효숙은 사라져가는 효를 지금 우리 앞에 되살려놓을 것이라 믿는다. **한글**



휴머니스트_《나비와 전사》

2001에서 2005년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글_선완규 휴머니스트 편집주간

최근 발간된 《나비와 전사》는, 글 잘 쓰고 공부 열심히 하는 저자와 함께 펴낸 책이어서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한 책이다.

2001년 6월 12일 내가 정리한 고미숙 저자의 <신간기 확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제) 일곱 개의 테마로 읽는 한국의 근대성', '민족, 근대, 변증법, 리얼리즘 등은 근대 100년을 풍미한 척도들이다. 한국의 근대를 살필 수 있는 자료나 사료는 대부분 이 범주들로 들어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어떤 에너지도 발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이 기획은 새로운 사유를 촉발하는 책이 되어야 한다. 근대화담론을 '민족'이라는 단일한 시각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근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 민족주의 담론을 벗어날 지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어떻게? "계보학적 관점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기의 근대계몽기를 뒤집어본다." 자료는? "근대 초기의 신문 기사" 초점은? "신문에 담긴 텍스트가 계몽담론을 어떻게 조직했는가? 를 추적하는 것이다. 구성은? 전체를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한다. 1장 근대 계몽기, 그 이중적 역설의 공간 / 2장 '민족' 혹은 새로운 '초월자'의 출현 / 3장 섹슈얼리티 / 4장 영원한 미완의 프로젝트-언문일지 / 5장 기독교와 병리학 / 6장 진화론과 기차 / 7장 근대적 지식의 배치와 실학

2001년 겨울 고미숙 저자의 강의를 듣고서 그 강의 목차를 재정리해본 것이다. 그 사이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을 발간되면서 저자는 고전평론가로서 인문학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기다리고 기다

려도 원고 집필은 아득하기만 한 듯하여 다른 일 하면서 기다리는 게 '뭉'에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무도 기획하지 않은 자유》 등의 책을 '워밍업' 삼아 집필하도록 부추겼다. 그러던 어느 날 "이타카에 가서 원고를 만들어 완성하겠다"는 고미숙 선생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역설적이게도 원고는 '국가 권력'의 힘을 빌려 비로소 집필하게 되었다. 학술진흥재단 연구프로젝트 마감 시한이 다가온 것이었다. 이번에는 저자가 급해진 것 같았다. 2006년 1월까지 마감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써왔던 관련 논문을 모아 저에게 보내 집필 방향에 대한 생각을 물어왔다. "기본 원고를 보냈으니, 편집자가 생각하는 컨셉과 이 책의 차례를 만들어 와야 집필을 시작" 하겠다고!

나는 이 글이 책으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 사회의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했다. 지식 사회에서는 고전평론가 고미숙의 근대성 탐구 저서이고, 18세기 담론과 1900년대 근대계몽기를 가로지며 구성한 탈근대의 비전탐구 작품,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근대와 탈근대 다른 유일한 책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을 읽은 교양층에게는 저자의 지명도, 글쓰기의 유쾌함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아무도 시도하지 않고 있는 18세기의 사유와 근대의 담론, 탈근대 담론을 연결하여 새로운 것을 비전을 창조하려는 야심찬 집필 의도로 볼 때, 핫(hot) 타이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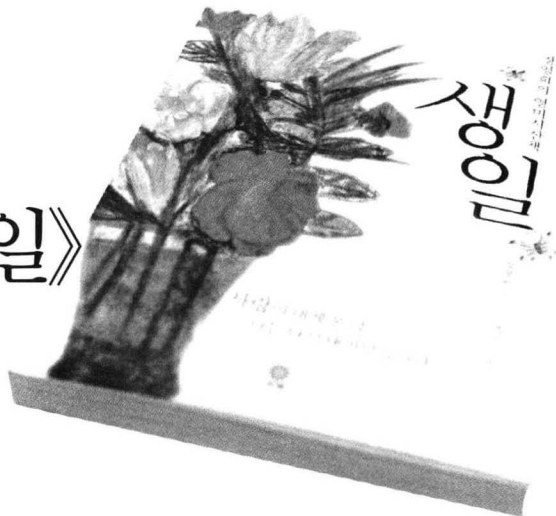
책은 많은 사람의 생각과 실천을 요구한다. 편집을 맡아주신 김선경 님, 디자이너 등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

출판사 이름
출판사 소개
주요
2009년
출판 10주년

도서출판 비채 《생일》

한아름 꽃다발 같은 시

글_하지순 편집부 과장



뒤돌아볼 틈도 없이 일주일 단위로 잘려나가는 일상의 시간 앞에서 문득 정신의 허기를 느낄 때, 맺고 있는 관계에서 오는 피로와 상처를 가만히 위로받으면서 다독이고 싶을 때, 또 가끔은 꼭 막힌 생각의 물꼬를 트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구원병으로 사람들은 시를 찾는다. 시야말로 인간의 마음속,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과 세상사의 다양한 국면을 가장 절제된 언어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리라.


그렇다면 영시는 어떨까. 셰익스피어, 예이츠, 엘리엇, 디킨슨, 프로스트. 영문학 전공자나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지간해서 영시를 찾아 읽는 독자가 많지 않으리라. 장영희의 영미시 산책 《생일》은 영시를 가까이할 기회가 없고 막연히 어렵게 느끼는 독자들에게 영시를 들려주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려는 데서 출발했다. 본래 일간지에 ‘장영희의 영미시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연재한 칼럼 중에 ‘사랑’을 주제로 한 49편만을 가려 모으고, 여기에 화가 김점선 선생의 그림이 더해졌다.

장영희 교수는 영미문학사에서 이름을 빼놓을 수 없는 유명 시인들의 작품 중에서 누구든 읽고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시들을 골라 번역하고, 거기에 자신의 감상을 덧붙였다. 영시의 매력을 번역과 비교해가며 느끼고 싶어 할 독자들을 위해 원문도 나란히 실어주었다. 유려한 시 번역이야 말할 것도 없고, 시 한 편 한 편에 달려 있는 감상글은 에세이스트 장영희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착착 감기는 문장의 맛과 시를 읽어내는 섬세한 감성, 삶과 사랑을 바라보는 속 깊은 시선이 풍요롭게 전해진다. 신문 연재 당시 암 선고를 받고 힘겹게 투병할 때

그 무엇보다도 시를 고르고 칼럼을 쓰는 일이 스스로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는 소중한 끈이 되었듯이, 자신의 글이 독자들의 삶에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바람이 행간마다 스며 있다.

《생일》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김점선 선생의 그림이다. 마음을 활짝 열고 자유롭게 시의 세계로 흠뻑 빠져들라고 손짓하듯 그림은 과격적이면서도 순진무구하게 시에 감응한다. 49편의 시에 600장의 그림을 그리고 그 중 300장을 출판사에 보낸 그 왕성한 열정에 편집자는 그림을 선별하며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했다. 《생일》을 합작한 장영희 교수와 김점선 선생은 오랫동안 우정을 과시해온 친구 사이다. 김점선 선생이 개구쟁이 소년 같은 친근함과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로운 사고를 지녔다면 장영희 교수는 차돌맹이처럼 강단 있고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는 치밀함을 가졌다. 두 분의 전혀 다른 개성이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화롭게 어울려 《생일》이 태어났다.

책이 출간되고 서점에서 장영희·김점선 선생의 독자 사인회를 가졌다. 다양한 연령층의 독자들이 자신이 볼 책과 함께 부모님, 친구, 연인, 남편, 아내, 자식, 은사에게 선물할 책을 한두 권 더 보태 사인을 받는 것이 인상 깊었다. 그들이 사인받은 책을 좋아하는 이에게 건네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책을 만든 사람들은 마음이 뿌듯했다.

저자와 화가와 출판사는 이 책이 누군가에게 건네는 환한 꽃다발 같은 의미가 되기를 바랐다. 육신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 “사랑에 눈떠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을 부여받는 생일”이라는 책 제목의 뜻처럼 ‘사랑의 생일’을 축하하는 꽃다발이 되기를. 



진선출판사 《스티브 모리슨 이야기》

(세상과 만나는 작은 이야기-11)

한국이름 최석춘, 한국입양홍보회 설립자의 감동적인 삶

글_ 강경화 편집팀장

‘세상과 만나는 작은 이야기’가 드디어 열한 번째 가족을 갖게 되었다. ‘세상과 만나는 작은 이야기’는 《작은 학교 이야기》를 시작으로, 기존의 창작동화와는 차별화된 읽기 책을 선보이자는 취지로 기획된 시리즈였다. 이미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기존의 창작물 틈에서 과연 제대로 커 줄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어느덧 열을 넘겼다는 사실에 성장한 내 자식을 보는 듯 대견함으로 가슴이 뿌듯하다.

창작동화가 아니다 보니, 이 시리즈의 가장 큰 어려움 점은 소재를 발굴해 내는 일이다. 어린 아이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의 소재를 찾기 위해 방송, 신문, 잡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스크랩해야 한다. 한 차례 모아진 내용은 책으로 가공하기에 적합한 내용인지 선별하고, 다시 편집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몇 가지 안으로 거른다. 그런 후에 본격적인 저자 섭외에 들어가고, 세부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 이 시리즈의 특징이다.

열한 번째 이야기는 작은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다른 작업으로 거창에 있는 ‘풀과 나무의 집’에 출장을 다녀올 일이 있었다. 생태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표성흠, 강민숙 선생님께 단행본을 상의드리러 간 것이었는데, 마침 강민숙 선생님은 ‘한국입양홍보회’ 설립자인 스티브 모리슨 씨의 이야기를 책으로 준비하고 계셨다.

스티브 모리슨 씨의 한국 이름은 최석춘, 강원도 묵호가 고향이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며 힘겹게 지내던 그는 14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된다. 파란 눈의 양부모님은 친자녀가 1남 2녀나 있고, 이미 한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으면서 또 스티브 모리슨을 입양한 것이

다. 그는 양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 훌륭하게 자랐고, 미국 우주항공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 된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과 행복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입양홍보회(엠펙, MPAK)를 설립하여 한국 입양문화 개선을 위해 많은 활동을 펼쳤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12월에는 명예서울시민증을 수여받기에 이른다.

스티브 모리슨이 살아 온 인생은 어떤 드라마보다 감동적이고 눈물겹다. 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의 고아들을 위해 1999년에 엠펙을 세웠다. 엠펙은 국내 입양을 홍보하고 장려하는 곳으로, 현재 국내에서만 600여 가정이 엠펙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가 퍼뜨린 사랑의 불씨로 인해 부모를 잃은 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을 찾고 있으며, 스티브 모리슨 씨 역시 두 명의 친딸이 있음에도 아들 한 명을 입양하여 부자의 연을 맺었다.

《스티브 모리슨 이야기》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국내 입양의 선구자가 된 지금까지의 행보를 들여다보는 잔잔한 내용으로, ‘세상과 만나는 작은 이야기’에 딱 들어맞는 소재였다. 책이 조금씩 꿀을 갖춰 갈 즈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5월 11일이 ‘입양의 날’로 제정된 것. 입양의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키고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은 결과였다.

사람 사는 이야기를 따뜻하게, 소중하게, 진솔하게 들려주는 ‘세상과 만나는 작은 이야기’. 세상은 참 따뜻한 곳이라는 걸, 그 안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걸, 우리 아이들이 하나하나 알아 갔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 본다. ☞